

**본 문제해설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해설(인문계 Ⅱ)

I. 출제의도

2014년 동국대학교 수시 인문계 Ⅱ 논술 수험생은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며, 논술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이었다. 올해는 사회공동체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여러 사회적 갈등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으며, 수험생들 또한 인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민주적 사회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식과 태도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논술 문제는 첫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질문하였고 둘째,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우리의 선의, 차별, 그리고 현실 인식을 통해 그 자체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다루었다.

올해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논술의 난이도이다. 수험생들이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논술의 난이도를 평이하게 설정하였고, 사용된 모든 지문들은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미리 접해 본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동국대학교 인문계 논술시험 형식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고 네 개의 문제가 주어진 데 반하여, 올해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고한 후 논술을 작성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파트 총 세 개의 문제만 출제하였다. 따라서 시험 시간 120분을 기준으로 총 12개의 짧은 제시문을 파악하는 데 15분 내외로 소요되며, 총 95분간 논술을 작성할 수 있다. 문제 유형은 제시문에서 핵심내용을 찾아내어 답안의 근거를 명시하는 설명형과 특정 관점에 대한 비판을 요구하는 비판형 형태를 갖추었다.

[문제 1& 2]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중 『법과 정치』와 『사회』 두 가지 교과목 내용에서 모든 제시문을 발췌하였다. 출제 의도는 시민은 참여를 통해 법적 사회적으로 정치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간단한 주제의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민주주의가 참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 해석형 문제로서 제시문에서 자유권의 한계를 설명하는 문구를 찾아 기술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단순 설명형과 상황해결형을 모두 적용한 문제로서, 민주주의 원리가

도출된 이유를 제시문에서 찾아 설명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 3]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하며 3D업종의 기피 현상,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주 결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인구의 약 3%를 넘어 2050년에는 그 인구가 약 5%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하다. 이 문제는 각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 정체성과 다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1)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media literacy)을 측정하고, 2)다문화 가정의 출신자가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II.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의 헌법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권이 가지는 한계를 제시문 【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시오.

1. 평가 기준 및 평가 주안점

제시문 [가]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자유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영역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즉 수험생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한다는 사회권이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문 [나]의 사례에서 찾아 지적해야 한다. 단순 해석형 문제로서 제시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모범 답안

우수한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희귀병 류코 다당증 환자들의 사례와 같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만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 국가는 최소 개입이 아니라 적극 개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문제2] 제시문 【다】 , 【라】 ,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 평가 기준 및 평가 주안점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내용은 민주주의가 국가의 권력 창출, 통치 과정 두 가지에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야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이 나온 이유를 제시문 [다], [라], [마]에서 각각 찾아 해석한다.

수험생은 [다]에서 국가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고, 또한 이 점이 권력을 구속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을 거부하는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에서 수험생은 국가 권력의 창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치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마]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즉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있어

야만 통치과정에서 기본권이 준수될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린다는 국민 자치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제시문은 국가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 둘 모두에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바]에서와 같이 생활정치, 공론장을 통한 참여만이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삶의 영역 즉 공공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공공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 좋다.

2. 모범답안:

우수한 답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다]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구속요건은 국민 기본권의 보장,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 보장에 있다는 것을 기술해야 한다.
- [라]에서 국가 권력의 창출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다. 즉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치 행위가 없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 [마]에서 대표자를 뽑은 이후에도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국민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음을 기술한다.

위의 내용을 병렬식으로 기술해도 되지만, 이를 종합하여 1) 근본 목적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2) 국민자치는 국가 권력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 과정에도 해당되고 3) 이 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상실된다는 원리라고 작성하면 더 우수하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치적 무관심을 벗어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수행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제를 보완하고, 협동과 자치에 기반한 참여 민주주의를 제안하면 우수한 답안이다.

[문제3] 다음은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 당신처럼.”

【가】 ~ 【다】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위의 공익광고에 담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비판하시오. 그리고 이 공익광고에 나오는 소년이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라】 ~ 【바】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1. 평가 기준 및 평가 주안점

(1)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무의식 비판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다문화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media literacy)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그를 위해 활용할 제시문 【가】 ~ 【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는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고 그 긍정적 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관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 의식이 요구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나】는 세계사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근거하여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타자’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내부 집단의 편견을 전염병의 사례로 설명한다.

【다】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을 재현한 문학 작품에서 아직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3D산업에 종사하는 하위주체로서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 중 【가】의 주장처럼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처럼 세계사적 사례나 문학적 재현 모두에서 내부 집단의 편견과 동화주의의 고정된 의식의 탓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익광고에서 다문화 가정, 혼혈,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은 다수의 선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우선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공익광고에는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 ‘한국적인 것’ [부계(父系)]의 정체성, 즉 다수에 대한 동화만을 요구하며 동일성의 사고방식이 심층에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에는 본래의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 [모계(母系)]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그들에 대한 다수의 자기(민족)중심주의적인 배타적인 시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배제 혹은 동화주의의 폭력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비판해야 한다.

(2) 광고 속 소년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

외국인 축구 선수의 귀화 의사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 【바】처럼 우리 사회는 귀화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였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집착하며 애국심을 본질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마】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설손과 그 후손처럼 위구르인이었으면서도 원나라와 고려로의 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귀화인의 사례도 많다. 【라】의 주장처럼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 본래 정체성이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상의 【라】 ~ 【바】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문제3】 중의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차이를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모범 답안

다문화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관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 의식을 요구한다.(【가】) 그런데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근거하여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타자’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내부 집단의 편견의 예는 세계사적으로 흔히 찾을 수 있다.(【나】)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이 문학 등을 통해 흔하게 재현되듯이,(【다】) 다문화 사회화로 인한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광고에서 다문화 가정, 혼혈,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표면에 들어나는 메시지는 다수의 관용과 선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공익광고에는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 부계(父系)의 ‘한국적인 것’의 정체성, 즉 다수에 대한 동화만을 요구하며 다문화적 정체성은 부정되는 동일주의의 사고방식이 심층에 내재해 있다. 이 광고에는 본래의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 [모계(母系)]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그들에 대한 다수의 자기(민족)중심주의적인 배타적인 시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배제 혹은 동화주의의 폭력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축구 선수의 귀화 의사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 글처럼 우리 사회는 귀화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이 아직 우세하다. 하지만 그 부정적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애국심을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स्पष्ट하다.(【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설손과 그 후손처럼 위구르인이었으면서도 원나라와 고려로의 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귀화인이 사례도 많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라】) 본래 정체성이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문제3】 중의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차이를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점 기준

(1) 제시문의 활용과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무의식 비판:

- 공익광고 본래의 선의(善意)를 정리하고, 자기(민족)중심주의에 의한 타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층에 내재함을 비판했는지 (15점 배점)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채점(5점 배점)

- 문장 표현력과 논리적 진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 필요
- 제시문의 활용 능력도 평가하여 차등 점수 부여

(2) 광고 속 소년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안:

- 공익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정의했는지 (7점 배점)
- 다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8점 배점)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채점(5점 배점)
- 문장 표현력과 논리적 진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 필요
- 제시문의 활용 능력도 평가하여 차등 점수 부여